

인천대로 설계·시공, ‘턴키’로 가속도

(일괄입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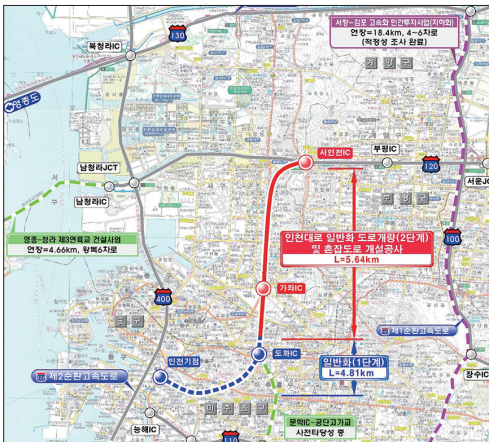
시, 공사 입찰·낙찰자 결정 방식 확정
고품질 시공 가중치 기준 적용 예정
내년 초 심의 통해 시공자 선정 계획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와 지하차도 공사가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개최된 지방 건설기술 심의 소위원회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방식과 낙찰자 결정 방식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신속한 공사 진행과 도심공사로 인한 안전한 시공성, 설계의 창의성을 고려해 입찰방식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위원회에 제안했다. 시는 ‘입찰방법’의 경우 단일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을, ‘낙찰자 결정 방식’의 경우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력, 비용 절감 및 고품질의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가 제안한 입찰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원안 가결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은 기본설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 및 혼잡도로 개선 공사 위치도. 인천시 제공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후,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한다. 가중치 기준방식은 설계 적격자 중 설계 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 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공사의 입찰안내서 심의 및 공기 적정성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입찰공고 예정이며, 내년 1월쯤 설계 적격자 심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로 5.64km,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km)를 건설한다.

류윤키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입찰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법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시민분들에게 인천대로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1년에 상습 정체구간인 공단고가교~서인천C 구간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와 혼잡도로 개선 공사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착수했으며, 2024년 3월 기획재정부와 지하차도(공단고가교~서인천C)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완료해 기본계획을 완료했다. 유정희 기자

부동산 AD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학세권·슬세권·공세권 ‘세 마리 토끼’ 다 잡았다

GTX·BRT 등 교통 호재로 접근성 ↑
29일 특별공급… 5월 2일까지 청약

롯데건설이 26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3053가구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로 조성된다. 이번에 2단지 1089가구를 분양한다.

분양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5월 2일 2순위 청약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 정당 계약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GTX 호재 지역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GTX-D-E노선에 포함됐다. D노선은 서울 강남권역으로, E노선은 서울 상암동권역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또 단지 앞에 간선급행버스(BRT)가 운행해 서울 강서구까지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앞 봉오대로를 통해 청라국제도시, 부

평구, 미추홀구 등 인천 시내 이동이 편리하고 서울 강서구까지 차량 30분 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서인천IC, 부평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노선 기대감도 있다. 이 사업은 서울2호선 홍대입구역부터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을 인천 계양 작전·서구 청라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프라도 좋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 효성서, 명현초, 효성초, 북인천여중, 효성중, 효성고 등이 있고 효성도서관과 여러 학원이 밀집해 있다. 차량으로 10분대에 홈플러스와 CGV,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계양구청 등이 있고 단지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되고 피트니스 클럽과 필라테스룸, GX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 시설도 마련된다. 미팅룸, 크리에이티브라운지, 스트리밍 시네마, 뮤직룸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학업기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도 생긴다. 1·2단지 주변을 둘러싸는 축구장 11개 규모로 대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

친환경 명소로 새단장 준비하는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

100억 투입해 시설 개선·보수 추진
지역 친화적 명소로 자리매김 도모

인천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에 100억 원이 투입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5~6월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현재 송도·청라 센터는 연간 25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증기열은 지역난방열원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이지만 사실상 기피시설로



인천 송도 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의시설 수영장.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민편의시설의 개보수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송도 센터는 수영장 여과설비 및 공

조기 필터 교체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 설비 및 소모성 부품 교체에 83억 원, 기계설비 성능 점검과 각종 안전관리 검사에 86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센터가 투명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환경센터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를 통해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친화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대련 바닷길, 4년 2개월 만에 ‘활짝’ 열렸다

한·중 국제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
비용호 투입해 주 3회 수송 진행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과 중국 대련을 오가는 한·중 국제카페리의 여객 운송이 4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고 2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선사 대인훼리㈜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으나, 이날 오전부터 인천항과 중국 대련 노선 여객 운송을 다시 시작했다.

대인훼리㈜가 매주 화요일·목요일·토요일

주 3회 노선에 투입하는 ‘비용호(BIRYONG)’는 1만 5000톤급 카페리 선박으로, 여객 500명과 화물 145TEU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하오핑 라오닝성 당서기,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류쉐핑 다롄시 부시장 등 중국측 인사 및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철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광용 카페리 선사 대인훼리㈜ 한국 대표는 환영의 의미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에서 첫 여객과 선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 카페리는 총 10개 노선으로, 여객 운송을 재개한 항로는 청도와 위해, 석도, 연태, 연운항 노선에 이어 대련까지 총 6개다. 아직 여객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잔여 항로 역시 각 카페리 선사에서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경규 사장은 “이번 인천·대련 항로 여객 수송 재개는 한·중 카페리 여객 100만 명 시대를 다시 여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증가하는 여객 추이에 맞춰 안정적인 여객수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중증 장애 이겨내고 장기 근속 ‘귀감’

(차장)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산업포장 수상
19년간 전산·사회공헌 등 역할 맡아

인천관광공사는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유승형 차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시 양재동 L타워에서 열렸다.

공사는 출범 당시부터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뒀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보다 1.01% 높은 4.41%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도 장애인 직원 고용에 애쓰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유승형 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산업포장을 수상한 유승형 차장은 중증 장애인이다. 2005년 인천도시공사로 입사해 2015년 인천관광공사 재출범 당시 인천관광공사로 지원해 19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전산·사회공헌·총무·해외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이사회의 일원인 노동이사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유승형 차장의 산업포장 수상을 축하한다”며 “공사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형 차장은 “백현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회사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산업포장 수상이라는 결과까지 나와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관광공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김민지 기자, 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

단기 자립생활주택 7곳 내달 개소
거주 기간 최대 3개월, 1회 연장 가능

인천지역 공공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주택이 다음달 문을 연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연수구 선학동 6곳, 동구 송림동 1곳 등 모두 7곳의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주택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단기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장소다. 자립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경우,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거주 기간은 1~3개월이다. 1회 연장도 가능하다. 거주 방식은 단독세대가 기본이지만, 송림동은 공동거주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해 2명 생활도 가능하다.

전담 사회복지사를 두고 개인 역량에 맞는 자립체험 계획을 세운다. 일상생활, 주거 관리, 금전 관리 등 자립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이곳은 실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역



장애인 단기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앞둔 최다빈 씨가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사회 자립 전 단계로 이곳을 거쳐 주거전환센터가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주택은 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 부담금을 내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28곳을 운영 중이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어 자립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개별공시지가 정보’ 이제 지도로 확인하세요

시 지도포털서 지반가격 열람 가능

인천시가 오는 29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지도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23개 토지 특성을 국가에서 결정한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한다.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텍스트 형식으로만

공개돼 지가를 결정하는 토지특성과 주변 토지의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시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역시 최초로 시 지도포털을 통해 지반과 ㎡당 가격을 시각화했다.

이번에 공개될 정보는 1㎡당 가격을 포함해 용도 지역, 토지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토지 특성 등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균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